

홍성현 Backend(Node)

P: 010-9232-9197

E: passionnhope0110@gmail.com

Notion: notion.so/jhongsh Github: github.com/Jenny9197

ESFJ 라서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좋아하지만, 때로는 말없고 낯가리는 노력형 거북이 개발자 홍성현입니다. 11 년간 캐나다에서 쌓아온 내공으로 의지가 갈수록 강해졌지만, 지금의 위치보다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기획부터, 팀 내에 원활한 소통 유지 및 맡은 기능에 대해서는 제 임무를 성실하게 끝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의 실수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늘 배우는 자세로 나아가는 사람이되겠습니다.

Skills

Javascript, Typescript, Node, Python, C, Html5, CSS3, Mysql, Sequelize ORM

Project Experience

Letskkirri Project

2021.10.23 ~ 2021.12.03 https://bit.ly/3go2Np8

Github: https://bit.ly/3mrHp0R

(공부와 일이 일상이 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여 자신의 직업 및 현 상태에서 추후의 목표를 공유하고, 책상의 공간이 어떤지 공유하는 서비스)

Tech: Passport, Sequelize, Swagger, Node, Mysql, Docker, Prometheus, Grafana, Javascript, S3, ckEditor5, Winston

Team: 백엔드 3, 프론트 3

- 데스크테리어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웹 서비스 형식으로 API 설계, 구현
- Swagger 를 통한 API 명세서 문서화
 - ▶ API 를 테스트 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지만, 모든 줄에 주석 처리를 설정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
- 시퀄라이즈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퀄라이즈가 잘 정리된 블로거와 공식 웹 문서를 번갈아 확인하며 내가 맡은 기능을 시퀄라이즈 방식으로 구현
 - ▶ 결과: 시퀄라이즈 (ORM) 를 통해 코드 간결화로 편리성 증가
- 백엔드와 프론트 회의할 때, 의견 충돌 발생할 때마다 중재 역할 및 프론트 팀원들 격려
- Typescript/Javascript 기반의 REST API 개발 모두 경험
 - ▶ TS 코드를 전체적으로 리뷰했을때, 깔끔해 보이지만, 일일이 타입을 지정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
- 백엔드 팀원들끼리 각자 맡은 기능이 끝나고 나면, 코드리뷰 및 리팩토링 작업을 하였고, 하루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 리팩토링 히스토리 작업을 작성하여 깃에 올렸다. 그 결과, 총 4 번의 코드리뷰를 하였으며, 코드리뷰를 함으로써 부족한 개념, 알지 못했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경험치를 얻을 수 있었다.

2021.10.11 ~ 2021.10.16 <u>https://bit.ly/3ebIWUm</u> Github: <u>https://bit.ly/3efDJuB</u>

Halohalloween Project

(매년 10 월 말에 다가오는 할로윈에 대한 행사에 대해 정보를 알고, 자신만의 할로윈을 어떻게 보냈는지 게시판 형식의 서비스)

Tech: Node, Express, MongoDB, Mongoose, Swagger, EC2, S3

Team: 프론트 3, 백엔드 2

- 할로윈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담당, 게시판 형태로 API 설계 및 구현
- 할로윈에 대한 역사 및 정보와 이미지를 제공
- Swagger 를 통한 API 명세서 문서화
 - ▶ Swagger 전체 작업을 하여 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험
 - ▶ API 를 테스트 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지만, 모든 줄에 주석 처리를 설정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
 - ▶ 띄어쓰기가 예민하여 줄을 맞춰주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음

Education

2016.09 ~ 2022.04 Augustana Campus in University of Alberta, Computer Science Undergraduate

2021.09 ~ 2021.12 스파르타 코딩 클럽 항해 3 기

2010.09 ~ 2016.06 Henry Wise Wood High School

Career

Administrative Assistant

Jan 2015 - June 2016

Rigby Insurance Ltd, Calgary, Canada

- Communicating skills
 - ▶ 보험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손님들과 다루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손님을 접대하며 필요한 상황에서 매니저에게 전화 연결
- Problem-solving skills
 - 자동차 사고에 대해 보험 회사와 상의하고,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번역을 도움
- Computer skills
 - ▶ 사고 및 차 변경을 위한 보고서를 만듦
 - ▶ 달마다 내는 고객들의 자동차 보험 비용을 엑셀로 정리
- Work individually

Cashier, Team member

August 2013 - Jan 2015

Tim Hortons Inc, Calgary, Canada

- Teamwork
 - 팀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필요한 도움이 있을때 팀 멤버들 대신 역할을 맡고. 용기 북돋워줌
 - ▶ 카페에 필요한 재료를 리필하고 테이블 정리
- Problem-solving skills / Communicating skills
 - ▶ 주문에 불만 있을때 손님들과 직접 다루며, 새 음료로 교체
 - ▶ 카페에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자주 소통하여 친밀감 형성
 -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문제가 있을때, 매니저에게 알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해결

자기소개서

나에 대한 간략한 소개

거북이 같지만 시간을 투자한 양만큼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홍성현입니다. 캐나다에서 살아온 흔적은 "의지의 한국인" 그 자체라는 별명이 따라붙을 정도로 제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물론 그 별명이 붙기까지는 오랫동안 저의 내공들이 쌓였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2 학년 재학 중에, 아버지의 권유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어권에서 살면, 얼마나 힘든지 아무것도 예상치 못하고, 저는 처음에 순수 그 자체의 시선으로 받아들였고, 아버지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익히라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2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삼성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던 아버지의 결정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 시간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은 캐나다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뤄냈다고 하기엔 배울 점이 많고, 해야할 일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나라에서 어느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에 다시 가려면, 한가지의 목표라도 제대로 끝마치고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중간에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지만, 그 시간까지 견디고 버텨왔던 제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단호히 거절하고, 10 여년의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개발자가 되고 싶은 이유

캐나다에서 살면서 느낀건, 환경 의식에 대한 생각은 뚜렷한 반면에, 한국처럼 IT 산업에 대한 발전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IT 의 점진적인 속도가 빠르고 편리함을 느끼면서 살다보니,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캐나다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 추우니까, 난방의자나 버스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고, 상당히 빠른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서로 협력하여 캐나다 사회에 반영되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IT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로봇기술, 의료, 게임 등의 여러 품목에서 IT 기술과 접목한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기회가 되면, 내가 태어난 곳인 한국에서 일 경험을 해보며, 한국 IT 의 우수성을 경험하고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개발자를 향한 나의 목표

앞으로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인공지능 및 프로그램 전문가가 되어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을 외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의 첫 시작이 거북이처럼 느려서 애매한 모습을 보게 될 지라도, 하나를 시작해도 끝을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좋은 개발자라고 인정받는 그날까지 묵묵히 제 자신과 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해 99 를 통해 느낀 과정에 대해 배운 점

캐나다 대학에서 한 학기에 여러 개의 언어로 Programming 을 하기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환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에 항해 99 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교육으로 코딩에 대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여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에 궁금증을 가지기도 했지만, 각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많이 부딪히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도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부족한 모습이 많았기에 함께 배워가는 자세에 임하며,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짬짬이 활용하여 동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코딩리뷰도 여러번 함으로써, 하나씩 제가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매 프로젝트마다 어떠한 기능을 구현할지라도, 늘 책상에

불어있는 제 모습과 밤과 낮 상관없이 잠과 고군분투하는 제 모습을 겪었습니다. 그를 통해 색다른 인내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중간중간 지치고 힘든 상황도 여러번 있었지만, 항해 99 의 매니저님들 덕분에 응원을 얻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주 차 과정에 알고리즘을 할까, 프로젝트를 한번 더 할까 했을 때, 과감히 프로젝트를 택했던 게 탁월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때, 프로젝트의 기여도가 낮았고, 더 배울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들 실전주차 프로젝트 기간이길어서 충분히 힘들고 지쳤을 시간에, 10 일간의 프로젝트를 택해서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하고 터득하고 완성했습니다. 99 일간의 단기간 프로젝트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자로써 과제와 시험을 번갈아 가며 하다가 졸업하기엔 제가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배웠는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엔드에서 한 가지의 언어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고, 추후에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할 때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원동기

JS Node 에 발을 들인 시간이 얼마 안된 만큼,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보여줄 실력은 안되지만, 제가 항해 99 를 통해 배운 지식을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턴과정을 통해 앞으로 저의 발전과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회가 된다면, 아이디어를 기획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나의 강점

한국과 캐나다에서 자라온 환경이 있는 만큼, 영어를 잘합니다.

개발자가 되려는데, 영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의문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고, 11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아온 생활이 제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때론 순조롭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순탄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카페에서는 손님들의 불만을 다 받아내고, 빠르고 좋은 서비스로 대처해야 했고, 다른 팀원들의 행동을 보고 본받을 점이 있으면 배워가면서 서비스에 대한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쪽에서 일할 때에도, 주로 한국 손님들과 상의하다보니, 빠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일상화되어, 영어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과 문제에 대한 해결처리를 할때에 보험사와 얘기를 많이 주고 받았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끈기는 저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두가지가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의식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줍니다.

그룹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팀원들과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통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었고,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망설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선택하여주신 분들에게 아직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저의 성실한 모습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유능한 일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